

철근 콘크리트 화순항에 매립?... 주민 반발

도, 강정항 케이스 완료 따라 배후부지 포장공사 추진
남은 구조물 철거 않고 매립... 마을회 “환경오염 우려”

제주도가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스 제작장으로 사용하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최근 케이스 제작 사업 완료에 따른 배후부지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스 제작 당시 설치된 대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포장기로 하면서 화순리마을회가 공사추진 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화순리마을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거 모 기업에서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스를 제작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됐으며,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이후에는 케이스 제작을 맡은 모 기업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긴 채 사업장을 철수했다.

이후 제주도가 해당 부지에서 배후부지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에 남아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강경보 화순리장은 “해당 부지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뒤 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매립해 포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스 제작장으로 사용하던 화순항 일부 구역에 대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화순항 배후부지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3만㎡로, 이중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면적은 대략 1만2000㎡이다. 또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는 데에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가 이번 포장공

사 사업에 확보한 총 예산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도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판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매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지 못하지만 현재 노출된 철근은 제거하고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해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도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케이스 제작 완료에 따른 배후부지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마치 국수가락처럼 노출돼 있다.

제주물류 인근 주차난 숨통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사 착수

제주시는 8일 주차심화지역인 노형 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 물류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대상지인 노형동 2612-2번지 인근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주차차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기존 92면을 수용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3층 4단에 72면이 증가한 총 164면의 규모로 2020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제주물류 서측 복층화 주차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본인증도 준공 시점에 심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김만덕 숨쉬는 마을’ 선정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주시 1곳이 소규모 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시가 신청한 ‘김만덕의 열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이 선정됐으며, 마을공동체복합센터와 주차시설 확보,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생활 SOC 건설이 추진된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진행된다. 국비 지원 규모는 뉴딜사업 형태에 따라 50억~100억원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농업인, 일반근로자보다 2.5배 더 다쳐”

오영훈 의원, 안전망 강화 주문

농업과 임업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농기계별 종합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은 전체산업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근로자의 경우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



년 0.97%로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산업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산업근로자에 비해 농림업 근로자들의 재해위험 노출 비율이 2.5배 높은 것이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의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가입률이 8%대로 저조했다.

오 의원은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한글날 맞아 기관·단체 공인 글씨 조사해보니...
“훈민정음체 아닌 전서체 사용 여전”

강성민 의원, 도내 공인 분석

제주도내 일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여전히 공인(公印)을 기존 ‘한글 전서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사진)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 대한 공인(公印·공공단체의 도장) 양식에 대한 분석자료를 8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고 윤준광 전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로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고 규정된 조항을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로 개정돼 같은 해 10월 9일 한글날부터 시행됐다. 이후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제주도의회는 공인을 ‘한글 전서체(篆書體)’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각(改刻)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자료요구에 응한 8개 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

자 및 출연기관, 체육단체인 경우 제주한의학연구원 고딕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도의 보조금을 받는 도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를 모 집단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도체육회 48개 가맹단체 중 95.8%인 46개 단체가 아직도 한글 전서체를 사용중이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단체는 한자 등 기타로 분류됐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24개 가맹단체 중 91.6%인 22개 단체가 한글 전서체를 사용 중이고, 한자 등 기타를 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훈민정음체를 사용하는데 반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모두 한글 전서체, 직속기관인 제주미래교육연구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은 예미체, 제주학생문화원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은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아직도 정체불명의 고블고블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글 전서체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어 사용해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주민편의 중심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시 건축경기 4년간 끝없는 하락세

미분양 시장 영향 허가 감소
시 “실소유자 구매방안 마련”

제주시 건축경기가 지난 2015년 정점을 찍은후 4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지난 2015년 5906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6년 4029건, 2017년 2739건, 2018년 1076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말 현재 563건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수감소는 미분양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는 2016년 260세대에서 2017년 1002

세대로 늘었으나 2018년 852세대, 올해 8월말 현재 516세대로 감소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집계는 30세대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승인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30세대 미만 주택과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등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집계에 제외되고 있어 실제 미분양 세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입인구 감소, 투자위축 등으로 신규개발사업 감소세가 이어져 새로운 분양세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해 미분양이 일부만 감소했다”며 “실소유자의 주택구매를 늘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앎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뢰하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제주시정 소식

미등기 사정 시점 후순 찾아주기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인근 토지주에게 알려드리는 사업
- 대상
 - 토지 안에 있는 미등기 묘지로서 지번 지적이 있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등으로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인접 토지주 신청
- 대상토지 :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 이면서 미등기인 묘지
- 시범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2 * 2020년 본격 시행
- 신청자격 : 본인 토지 경계내의 묘지로서 묘지와 접한 토지주가 신청
- 접 수 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064-728-2161, 2162)

2019. 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 운영

-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 : 2019. 9. 30. ~ 10. 30. (30일간)
- 열람 대상
 - 2019. 1.1.~5.31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일부설치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적
 - *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가격과 주거용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임
-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 개별주택가격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go.kr)
 -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라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 가능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728-2341~4

일도2동 「제6회 고마로(馬路)문화 축제」

- 일 시 : 2019. 10. 18.(금) ~ 10. 19.(토)
- * 개막식 : 2019. 10. 19.(토) 11:00 · 신산공원 북쪽(구, 호남석재사거리)
- 장 소 : 일도2동 고마로 및 신산공원 일대
- 주최 · 주관 : 일도2동 고마로마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길거리 퍼레이드 : 가마대, 휘태대/관악대, 해병관악대, 풍물, 자생단체 및 시민 · 관공적
 - 주요행사 : 고마로 거리퍼레이드, 마제, 문화프로그램 발표 및 공연(노래자랑, 이벤트게임, 민속놀이, 마당극, 예술단), 작은음악회, 사생대회, 마제품전시, 미니말 포토존, 청소년 락페스티벌, 먹거리 장터 및 체험부스 운영, 축하공연(군악대, 풍악, 초대가수) 등.
- 문 의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728-4441